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부터 성탄절 전 주일까지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입니다.

오후집회 후에 담임목사실에서 모입니다.

오는 수요일 집회는 12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12월 3일(수) 아침 9시부터 교회 김장을 합니다.

오는 성탄절에 세례 받거나 입교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내시고 예비교육에 참석하십시오.

2009년도 교인전화번호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들은 11월 30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와 선교회는 일년 동안의 활동을 보고서에 작성하여 오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 오후 2시에 친교실에서 2008년도 당회로 모입니다. 당회원은 입교인 전원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이 이번 주 토요일(12월 6일) 저녁 7시 우리 교회에서 공연을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내복을 입으십시오. 몸도 따뜻해지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새롭게 대림절기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전쟁과 테러, 배고픔과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낮에도 두려움과 분노의 어두운 그늘 아래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기에 희망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눈앞에 있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산다고 하였지만 실상 자신의 욕심과 알량한 자존심만을 따라 살아왔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눈을 감게 해주십시오. 눈을 감고 고요히 기도의 호흡을 가다듬게 하시고 낮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구명자 김용진 박효선 김필순 박영희 임승동
백혜숙 임 영 정경례 전월수 정복순 조병주 문복순 최현선 임고운
최윤희 권미숙 허호범 이성운 장원호 박성희

월정헌금:

안길상 이형숙 이유선 하정석 이명희 하현철 최성애 이경남 배재경
이수정

감사헌금:

하정석 이명희 이경남 조항범 정종삼 이건식 신영신 최용관 김정선
이정현 김민아 김준호 광경선 문병남 조관행 홍선희 김재홍 최희영
우순덕 김지현 김지은 조말순 양재성 안정숙 이재문가족일동 무명4
5,6남선교회

추수감사헌금 : 김순옥 김진

생일감사 : 조병무 조관행 홍선희

녹색꿈헌금 : 장재영 임미심 제2여선교회 (누계: 6,721,000원)

	장혜숙	장혜숙	정두리	장혜숙
	노순옥	정경례	김윤수	노순옥
	임정자	임정자	서원금	정복순
	문영혜	박경선	곽혜자	김진경
	안정숙	박애순	최희영	조병주
	박홍재	곽권희	김경수	송의섭
	박효선	허정윤	김정애	박효선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권미정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강순배
	이형숙	권미숙	김필순	구성실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정현주
	백혜숙	정옥영	백혜숙	정영선
	송양진	유경순	김명희	김혜권
	이영란	박미영	방극숙	배삼순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진정한 여행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씌어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향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 나짐 히크메트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이제 욕심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고 사십시오. 우리가 '본다'하는 것들, '안다'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한정하려 했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눈앞의 것에만 붙들려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 맥잡기 / 김기석 목사	12월 기도의 밤
기도 / 박홍재 권사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곽권희 집사 윤석철 장로	인도자 송동준 집사

11월	영접위원	윤석철 홍순구 박규석 안정숙 안홍숙 박경선
	헌금위원	구성실 정경례(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이 길은 신이 지켜보고 있는 게 틀림없어

복숭아 두 알과 울무차로 아침을 먹었다. 길을 나서니 다섯 시 사십 오분. 날이 밝아오고 있다. 오른쪽 무릎의 통증은 여전한 데다 이제는 왼쪽 복숭아뼈까지 부어올랐다. 달팽이의 속도로 걷는다.

삼십 분쯤 걸었을까. 이라체 **Irache** 수도원의 전설적인 수도꼭지가 나온다. 이 수도원에는 수도꼭지가 두 개 있는데, 왼쪽을 틀면 붉은 와인이 나오고, 오른쪽을 틀면 물이 나오는 걸로 유명하다. 길 가던 순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왼쪽 꼭지에 입을 갖다 댄다. 물병 가득 포도주를 담아 가는 순례자도 보인다. 순례자를 위해 이렇게 환상적인 무료 음주대를 마련해놓은 수도원장님께 감사를 표하고 다시 걷는다.

일곱 시쯤 잠시 휴식. 아픈 다리만 아니라면 나는 얼마나 상쾌한 기분으로 이 아침을 즐기고 있을까? 인터넷도, 우체국도, 내 몸도, 아무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스페인. 나는 지금 시험에 든 걸까?

“난 지금 지팡이가 필요해. 정말 필요하다구. 오늘따라 길가에 나무도 막 하나 보이지 않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중얼거리며 걷는 길.

아스퀘타 **Azqueta**라는 마을에 들어섰다. 동네 입구에 런닝 셔츠에 파란 작업복 차림의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인사를 건넨다.

“부에노스 디아스(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산티아고 가는 길인가?” “씨(네).” “어디서 왔나? 중국 사람?” “노, 소이 데 코레(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북한? 남한?” “남한요.”(여기까지도 스페인어 구사가 가능하다.) “내 인생에 여길 지나가는 한국 사람은 처음 봐. 근데 스페인어는 할 줄 알아?” “노 아볼라 에스파놀(스페인어 못해요).” “아니, 스페인어도 못하면서 스페인을 여행해? 욱보네, 욱봐. 근데, 다리는 왜 절어? 무릎 다쳤어?” “예.” “지팡이가 하나 있어야겠네. 요로코롬 따라와 봐. 지팡이 하나 마련해 줄 테니.” “네.”(여기서부터는 추리력을 가동한다.)

할아버지를 따라 좁은 골목을 지나고 정원을 지나 창고 앞에 다다르니 세상에, 지팡이용 나뭇단이 가득 쌓여 있다. 울망줄망 어린 자식새끼들 바라보듯 대견한 표정으로 나뭇단을 둘러보던 할아버지가 날씬하게 잘 뺀 몸을 하나 집어낸다.

대충 길이를 재보는 할아버지. 내 키에 맞춰 톱질까지 해주신다. 그런 후에는 손잡이 부분에 사포질까지 해주시는 할아버지. 완전히 산신령 그대로다.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대신 “이 지팡이 줄까? 저 지팡이 줄까?”를 묻는 산신령. 지팡이를 다 만든 후에는 걷는 법까지 시범으로 보여주신다.

“요렇게 디딘 다음에 발을 떼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또 요놈으로 땅을 디디고. 알겠제?”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걸어. 어여 가.”

지팡이가 생기고 나니 힘이 좀 난다. 이제 주린 배를 채우는 일만 남았다. 아홉 시가 다 되어 비야마요르 데 몬호르딘 **Villamayor de Monjardin**에 도착. 문이 열린 집으로 들어섰다. 카페인 줄 알고 들어간 곳이 알베르게다. 나를 본 아줌마가 내 배낭을 받아 내려놓더니 “앉아서 밥 좀 먹고 가.”하신다. 하늘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다가 아무래도 내가 무릎을 꿇게 삼아 중도하차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기적을 내린 게 아닐까? 뜨거운 차에 잼과 버터를 바른 바게트를 허겁지겁 먹어치운다. 이 알베르게의 주인 아줌마는 영국에서 20년을 산 브라질인이다. 산티아고를 걷고 난 후 이 길에 매료돼 스페인에 정착, 작은 알베르게를 운영하며 순례자들을 돕고 있다.

이제는 배도 채웠겠다, 열심히 걷는 일만 남았다. 오늘의 목적지인 로스 아르코스 **Los Arcos**로 가는 여정. 마지막 한 시간은 정말 주저앉고 싶었다. 그늘이라고는 한 점도 없는 맹벌레, 다리는 아프지, 물도 떨어졌지..... 지친 몸을 겨우겨우 이끌고 마을에 들어선다.

생각해보니 국토종단 할 땐 그야말로 천국이였다. 배낭도 가벼웠지. 다리도 안 아팠지. 방은 늘 독방이었지. 무엇보다 음식 걱정 없고 의사소통 완벽했지. 태양도 훨씬 순했으니. 그땐 전화도 있었고. 주말마다 내려와 같이 걸어주던 벼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인터넷조차 안 되고.....

아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낙관주의와 긍정적 사고로 무장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토종단 할 때보다 좋은 점을 찾아보자. 우선은 차가 썩썩 달리는 도로를 걷는 일이 없다는 것. 이 길은 완벽하게 도보 여행자를 위해 준비된 길이다. 게다가 순례자 전용의 저렴한 숙소들이 마을마다 들어서 있다. 또, 같은 목적을 가진 전세계 사람들이 함께 걷기에 친구를 사귀기에도 훌륭하다. 저절로 어학연수가 되고, 문화체험이 이루어진다. 게다가 다 걷고 나면 증서까지 준다. 이 정도면 완벽한 길 아닌가?
- 김남희 『걷기 여행2』